

Issue Comment

- ✓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 ✓ 배당수익률 5% 상회
- ✓ 자체사업의 실적 성장은 진행형

두산, 배당주로서의 매력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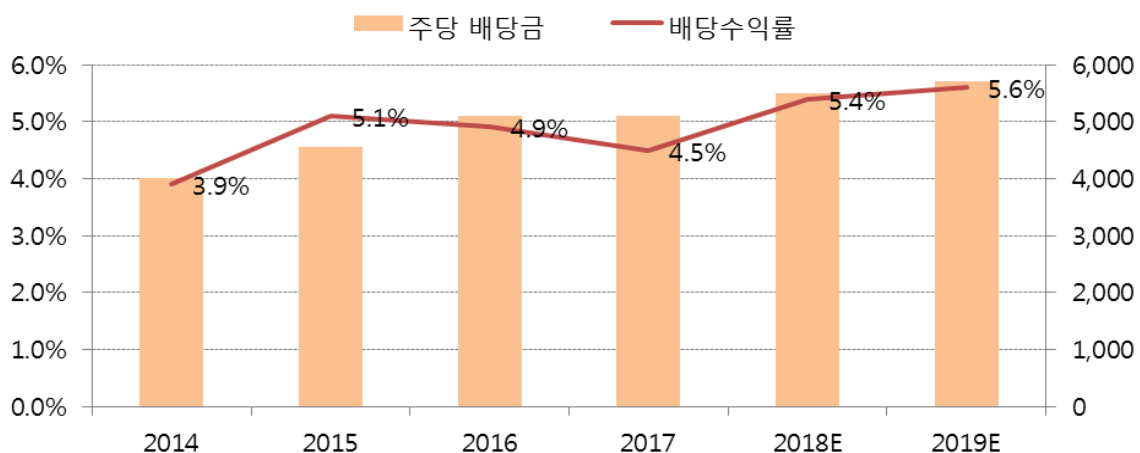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 기준 강화와 간접지분 포함 등을 통해 편법적 경영권 승계 방지와 공정거래 확립을 꾀하고 있다. 비핵심 계열사의 지분 매각도 권유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주사들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두산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구조, 내부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은 제한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가 하락으로 배당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2 분기 중간 배당도 1 분기 배당금인 주당 1,300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결산배당까지 감안한다면 배당수익률은 5%이상이다. 대외 변수로 조정 움직임이 뚜렷한 현 장세에서 안정적인 투자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사업의 실적 호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주력 사업부인 전자와 산업차량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모터를, 면세점 등 전 사업부에 걸쳐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사업전망을 고려한 자체사업의 가치만도 3 조원을 상회한다. 보유지분 등 비영업자산 가치와 순차입금을 고려한 적정가치와 현 주가는 70%이상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주당배당금과 배당수익률

(단위 : 원)



자료 : SK 증권 추정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